

세계관동역회 통합 이후 7년, 길을 묻다

SPEAKER : 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타 기관의 단체장의 시선으로 본 세계관동역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지난 1,2월호에 소개하였다. 세계관동역회 임원을 대상으로 이런 장은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월드뷰의 지면을 통해 답도록 하겠다.



[1월호] 이강일 _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와 추이

[2월호] 양희송 _ 기독교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

[3월호] 대담, 물고 답하다

세계관동역회 임원(이하 세동)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크리스천 사회(christian society)의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양희송 '한국 기독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교회가 개신교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기존 방식은 대형교회나 교단, NCC처럼 위임받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할 누군가를 찾는다면 기존 방식은 대형교회나 교단, 위임받은 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안의 주제가 기독교 관련된 교육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성은 교육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전문가에게, 법 관련한 사안이라면 기독교 법률 전문가에게, 의료인 문제라면 기독교 의료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1차적 책임성을 갖고 답변할 의무를 지닌다 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기독교 사회(christian society, 지난 2월호 참고)'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구조가 아닌, 해당영역의 기독교적 안목을 지닌 전문 집단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교계의 대표들이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잘 이해하지도 못한 사안을 대변하다보니 언론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나마 최근에 기독교 직능단체들 몇몇 곳이 이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법조 등에서는 상당히 노력했고 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자리를 잡으면 훗날에는 직접 발언, 혹은 정확한 자문으로 교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동 두 분의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세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세계관동역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선교단체 속, 세대 변화의 전환점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양희승 더 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해온 복음전도와 제자양육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으나 양육은 어떤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IVF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주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참고도서,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IVP). 커리큘럼의 재개발이며 콘텐츠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갖고 있던 피상성, 일정기간 동안 서구의 특수를 그간 누렸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이 지나가며 한국사회와 서구가 시차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 맥락에서 정밀하게 조율된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번역물을 그대로 들여오며 1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트렌드가 해외 선교나 선교 운동 등으로 활동이 강조되어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열심히 앉아서 양육하고 학습하던 것과 어마어마하게 커진 선교운동이 맞바꾼 듯한 느낌도 듭니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성운동과 제자훈련이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오히려 굉장한 활동력을 지닌 선교운동으로 이양하다 이제는 이마저도 기울고 그 사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맥락에서 정밀하게 조율된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시점을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이강일 간단히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가장 큰 부분이 학습방법이 바뀐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세계관이라는 용어의 전수가 아니라, 세상의 혼합주의나 이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인식으로 변혁이든 대조 공동체를 세우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을 세계관이라 칭한다면, 그 방법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커리큘럼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통전적 변혁을 전수할 수 있다면 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80~90년대처럼 다수가 똑같은 활동으로 모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되어 성령 운동하는 그룹선교, 사회변혁그룹 등 골고루 분산되는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세계관이란 용어의 전수가 아니라 세상의 혼합주의나 이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학습방법 또한 종래의 세계관 교육,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교육했던 부분과는 달리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양희송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텍스트 자체가 유효기간이 지난(out of date)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읽은 책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웹퍼의 저술의 경우에는 지금 세대들과 함께 읽을 때, 당시 사조나 논의를 읽어내는 자체가 지금과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미 있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세계관 관련된 서적들 중에는 초창기에 나온 책들 또한 세월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미미합니다. 이강일 소장 말처럼,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에 관련된 연구들을 학생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학습을 하며 그것과 보조를 맞춰 대등하게 세계관적 저술을 읽어가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오래전 것이거나 개론서에 가까워 본격적으로 어떤 논의를 펼치기에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도 있게 접근하여 원전으로 공부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세계관 관련 도서들은 너무 가볍고 간단한 서술에 그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분야에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과 함께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어람아카데미는 강영안 교수님의 강의를 무게감 있는 주제로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의

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개론적 세계관 강좌는 이미 많이 접했고 자료도 많습니다. 강영안 교수님 강의의 강점은 대중성이 아니라 원전이거든요. 원전으로 승부를 거니까 쉽게 만족하지 않는 그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기독교 학자로 1차 자료를 스스로 읽어 내며 논의를 펼쳐가는 내공, 지적 자신감에 지금 세대들은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우리가 다시 세계관 교과서 같은 텍스트를 보면서 2차, 3차 평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사람 모으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원전에 부합할만한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현재 인문학 붐으로 해당 영역의 전문 학자들을 대중 앞으로 불러낸 동영상이나 강좌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세계관동역회에서 선보일 수 있는 지성이나 담론의 무게가 그 정도의 급은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동 세계관의 학적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결국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희송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인데요, 아쉬운 것은 그동안 세계관 운동을 해온 그룹에서 내놓은 과업이 이게 '기독교세계관적 삶이다' 말할만한 좋은 예들이 잘 발굴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기업의 직업소명과 경영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 소개했더니, 노동윤리나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집니다. 물론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한 과업들이 나와 줘야 세계관을 말할 기회라도 얻는데 우리가 쓸 만한 예시들이 없진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있어야겠습니다.

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이자 교수

로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 조직 자체가 긴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슈 대응이나 운동도 이런 조직의 특수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월드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동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을 비정규직 연구자와 강사들을 견인할 구조에 제안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양희승 딱히 대안이 이거다!가 아니고 동역회도 바로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의식적인 고민이 있어야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학계를 잘 모르고 대안을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의제로 세계관동역회가 다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동 예를 들면 젊은 3,4세대 그룹하고 우리 늙은 1,2세대와의 대화나 느슨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희승 그렇죠. 청어람에서는 기독교 소장연구자 컨퍼런스를 4회 정도 했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문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선배세대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난상토론도 했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 보다 다만 이 문제가 중요하기에 논의의 장을 열 어둔다는 것만 해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세계관동역회가 그런 논의의 장들 자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리매김으로 여러 그룹들이 와서 때론 협력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장이라도 만든다면 자생적으로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격려가, 세계관동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주어진 관을 잘 읽어내어 자연스럽게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

습니다.

※ 지면을 통해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양희승 청어람 ARMC 대표님,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님 두 분과 참석해주신 임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음 임원대상 강좌는 4월 중에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를 공모합니다!

- 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논문제안서 응모전 -

- **논문 주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 학술적인 논문
- **공모 요강**
 - 제출기한 : 2017. 5. 30(화)까지 논문제안서 제출
 - 제출자료 : 1) 연구논문 제안서 (7매 내외, 참고문헌 별도)
2) 이력서 (자유형식이나 단, 이메일, 손전화 필수 기재)
* 제출시 메일 제목을 “[이름] 논문제안서 공모”로 기재
 - 제출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e-mail : gihakyun@daum.net
 - 선정절차 : 제안서 심사 후 선정 →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요청 → 논문심사 후 게재
 - 선정편수 : 5편 내외 (비전임 신진학자, 대학원생 우대함)
 - 발표일자 : 2017.6.20(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개별연락, 월드뷰 공시)
- **특전 및 의무**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선정시와 논문 게재시 시상금 100만원/편 지급함. (제안서 채택시 50만원, 『신앙과 학문』 논문 게재시 50만원 지급)
 -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 게재여부 결정함.
 - 선정된 논문의 『신앙과 학문』에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 (단, 23권 1호(18년 3월호) 발행분에 한함).
 - 선정된 논문의 제안서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본회 학술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전제로 함.
- **문의** 세계관연구소 담당
(tel: 02-3272-4967, 신효영 사무국장)